

특허청, UAE·브루나이에 K-지식재산 전파

- UAE·브루나이 대상 '해외기관 지재권 컨설팅 사업'('23~'24) 완료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2년간('23~'24)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브루나이 다루살람(브루나이)의 지식재산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외기관 지재권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해외기관 지재권 컨설팅 사업은 특허청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브루나이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가 수행하였다.

동 사업은 지식재산 중점 협력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국의 지재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23~'24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를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의 출원 증대」 및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연구」를, 브루나이를 대상으로는 「지식재산 정책을 위한 전략 가이드」, 「지식재산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발명교육 교재 발췌본과 발명 실습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교사·학생들이 이를 발명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현황에 맞는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담당자들을 한국에 초청, 발명특성화고, 경주발명체험교육관, 지식재산관리 우수 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직접 수업을 참관하고 시설을 체험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브루나이는 2년간 지식재산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자체 역량 강화 필요성을 체감하고 신규 특허심사관을 채용하여 자체적으로 특허심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상담(컨설팅) 과정 중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특허청은 향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등 중동국가와의 협력을 다양화하고, 금년 한-아세안 청장회의의 국내 개최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기업에 친숙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는 주요 신흥시장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과의 사업을 추진하여 케이(K)-지식재산을 전파하고,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수출 등 행정 한류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선도국으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확산함으로써, 해외 진출 기업의 지재권을 확보하고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승관 (042-481-5063)
		담당자	사무관	감유림 (042-481-5936)

